

한국불교 법화계 종단의 시식의례 연구*

- 서울 영산법화사를 중심으로 -

김서울**

- I. 서언
- II. 법화 신앙과 법화 종단
- III. 서울 영산법화사의 시식의례
- IV. 결어

요약문

이 글은 한국불교 법화계 종단인 영산법화종의 서울 영산법화사의 시식의례의 양상과 특징을 전통불교종단의 관음시식 의례와 비교하여 살펴본 글이다.

영산법화사의 시식의례는 『천도 법요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시식의례의 일반적인 기본구조에 따르면 청을 했으면 찬탄하고 공양하는 오신과 신에게 부탁하는 呪願과 祝願을 하고, 본래 있는 자리로 보내드리는 송신의식으로 구성된다. 서울 영산법화사 『천도 법요식』의 의례 구조를 위의 기준으로, 삼보례에서 신을 청하는 소청(召請)까지의 첫째 단계와 찬탄 공양 및 주원과 축원 당구가피 의식까지를 둘째 의 오신(娛神)으로 보고, 셋째 보내드리는 봉송까지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영산법화사의 『천도 법요식』에는 전통불교 종단의 시식에 나타나는 ‘觀想만 하라’고 하고 있고, 따로 변재 삼보를 소청하는 의식이 보이지 않으며, 또 계송 이후 진언이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의식이 관상하는 의식이고, 가피를 구하는 당구가피(當求加被)를 귀의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2023년 10월 28일 사단법인 세계불학원에서 개최한 제24차 의례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kimk680107@gamil.com

주제어 : 법화계종단, 영산법화사, 시식의례, 법화경, 승신의식 관상, 당구가피

I. 서언

의례는 종교마다 독특한 양식으로 실현되며, 같은 불교라고 해도 종단에 따라 그 양상이나 목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의례는 종교의식으로 이념과 교리를 드러내어 현재화하는데, 제의(rite)와 예배(worship)가 의례(ritual)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¹⁾ 불교의 분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류법으로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교(顯敎)와 그 가르침이 바로 드러나지 않고 비밀스럽게 보이는 밀교(密敎)의 둘로 나누고 그 방법에 따라 종단 등이 나뉜다. 같은 현교 종단이라고 분류되는 한국불교 전통 종단과 법화계 종단의 의식에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 전통 종단의 의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나²⁾ 법화계 종단의 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법화계 종단의 예경과 송주의례」³⁾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의례에는 중생들에게 법의 음식을 베푸는 시식의례가 있다. 시식의 형식은 음식을 받는 존재들과 청하여 진언의 가지에 의하여 음식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받은 존재들에게 베풀며 진리를 깨우쳐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보내는 형식이다. 현재 한국불교 전통 종단의 시식의례는 현교의 계승과 밀교의 진언 등이 결합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불교의 전통 시식의례의 구조를 분과한 『일용의식수문기』⁴⁾와 『통일법요집(관음시식)』을 대상으로 「한국불교 의례 체계 연구」의 분과⁵⁾를 참고하며 서울 영산법화사의 시식의례⁶⁾을 분석하여, 한국불교 법화계 종단인 영산법

1) 이성운(2017), 「근현대 한국불교 예송의례의 아우라」, 133.

2) 이성운(2011); 박상학(2011); 이성운(2012); 심상현(2014); 이성운·문기조(2022).

3) 전영숙(2021), 「한국불교 법화계종단의 예송의례」, 133.

4) 김월운(1991), 『日用儀式隨聞記』, 60-61.

5)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39.

6) 이법화(1993), 『법화경요문과 예규(法華經要門과 禮規)』, 163.

화종의 서울 영산법화사의 시식의례의 양상과 특징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영산법화사는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6번지에 소재하며 계묘년 정초 『천도 법요식』(2023.1.28. 11~12)과 그 의문인 『법화경요문과 예구(法華經要門과 禮規)』의 의문과 의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법화 신앙과 법화 종단을 일별하고, 영산법화사 시식의례의 양상과 그 신앙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법화 신앙과 법화 종단

‘법화 신앙’이란 『법화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귀의와, 『법화경』에 설해진 갖가지 실천법(實踐法)을 지심(至心)으로 행하여 수승한 결과를 얻으며, 다시 그것으로 인하여 불법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한국 법화 신앙의 역사적 전개를 고찰하면 신앙의 대상인 『법화경』과 신앙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편의상 제1류, 제2류, 제3류로 나누어 본다면 제1류는 『법화경』에 등장하는 모든 불보살에게 의지하고 그 구원을 바라는 청원태형(請願態型)의 신앙이다.⁷⁾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들은 일상 속에서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의 하나가 법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초점이 될 수 있으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원하는 ‘기복신앙’적인 통속신앙의 기반이 되는 신앙 체제이다.

제2류는 『법화경』에 나오는 불탑이나 경권수지(經卷受持) 등 신앙 행위를 실천하고 그 행위에 대한 인과를 바라는 희구태형(希求態型)의 신앙이다. 여기에서는 일상적 문제보다도 오히려 종교적 문제로 그 중심이 옮겨간다.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행동 자체 속에 있는 의미나 가치 쪽이 더 중요해지게 되어,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결과물로, 사경을 많이 하여

7) 岸本英夫·박인재 역(1983), 『종교학』, 50-52.

불탑에 넣는 행위에 방점을 둔다.

제3류는 『법화경』에 나오는 불보살과 같게 되고자 하는 자발적 행위로 연결되는 제주태형(諦住態型)의 신앙이다. 마음속 깊이 새로운 광명이 비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일상적인 생과사를 초월한, 한층 더 높은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이 높은 가치를 체득한 결과 육체적인 생과사는 그 상태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것을 초월한 궁극의 생명이 새로이 파악된다. 그 속에 살면서 나날의 생활을 더 높은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그대로 영위해 가는 것이 바로 궁극적 가치라고 해야 할 것이며, 이 상태가 직관적으로 파악된 상태이다.⁸⁾

한국불교에는 전통 종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이나 태고종만이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데, 한국불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의 27종단을 포함해 적지 않은 종단이 등록되어 있다.⁹⁾ 신흥교단 중에서 계통은 다르지만, 불교라는 커다란 공통 범주에 속하는 수많은 교단이 등장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 중에 법화 계통의 신흥교단 역시 적지 않다.

李瓊雨는 이들 법화계 종단의 특징을, 첫째는 전통적인 법화 사상을 한국적인 맥락에서 구성한 단체, 둘째는 법화 사상에 재래의 민속신앙을 결합한 단체, 셋째는 일본 법화종계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단체, 넷째는 일본의 일련정종과 창가학회의 국내지부로 나누고 있다.¹⁰⁾

불교라는 커다란 공통 범주를 공유하는 종단 가운데 1930년대 이후 한국불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단으로는 법화 종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 법화 종단이라고 하면 『묘법연화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종단을 지칭한다. 법화 종단에는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불입종, 영산법화종, 대한불교관음종, 대한불교원융종, 대한불교구세원과 부정계(不定系)로는 통불교보살회, 대한생활불교회, 대한불교회관, 대승교중앙본부, 대한불교용원사, 한국대승불교여래종, 한국불교법륜종, 대한통불우암정사, 해동관음종, 대승원 등 열여섯 곳이 알려져 있다.¹¹⁾

8) 岸本英夫·박인재 역(1983), 『종교학』, 50-52.

9) <https://ksdsang0924.tistory.com.2023년> [2023. 3. 26].

10) 李瓊雨(1986), 「법화계열 종단들」, 134-135; 李庚五(1992), 『한국신흥종교총람』, 602.

법화계 종단 영산법화종은 이법화 조사(祖師)가 개창하였는데, 이법화는 진해 도불산 묘법사에서 불기 2501년(1957) 태세 정유년 3월 3일 처음으로 본전 만다라를 시현으로 법화 도량을 열었다. 영산법화종단의 근본 교리는 석가세존께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묘법연화경』 본문(후반 14품)에서 설하신 《본유상주(本有常主), 무작삼신(無作三身)》과 천태종 10불 이문 가운데의 《색심불이(色心不二)》를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본유상주(本有常主), 무작삼신(無作三身)》이란, 붓다는 이 세상에 오시어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깨달음을 이룬 분(구원실성(久遠實成)) 곧 석가세존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색심불이(色心不二)》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이며 실체를 실체대로 표현하면 바로 ‘묘법연화경’이라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본래부터 붓다이신 석가 모니불과 우주 만유의 실체를 표현한 ‘묘법연화경’을 교리의 중심사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영산법화사는 석가세존의 가르침에 따라 이법화 조사를 말법 만년 미증유 색심불이 대만다라인 ‘나무묘법연화경’을 본존으로 모시고, 『법화 3부경』의 가르침을 이념으로 하여 이를 실생활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색심불이(色心不二) 관심본문(觀心本門)의 본존(本尊)》이라고 한다.¹²⁾

법화 종단들은 무엇보다 『법화경』을 소의 경전으로 삼아 ‘법화 사상의 구현’¹³⁾을 지향하는 부분을 공유한다. 『법화경』은 제목(題目) 봉창, 본존불, 다보탑 신앙과 불단(佛壇; 수미단) 구성 등을 공유하는데¹⁴⁾ 그 가운데 대한불교 영산법화종의 서울 영산법화사의 시식의례를 살펴보자.

11) 김방용(1998), 「한국불교계 신생종단의 성립과 사상」, 196.

12) 영산법화사(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6길), 『법당용 기초교리 1』, 2.

13) 종범(1983), 364. 이 연구에 따르면, 법화사상의 구현 범위는 『법화경』에서 강조되는 ‘현세이익 성취와 성불’이라는 공덕에 대한 믿음, 4종 수행(四種修行: 受持·讀誦·解脫·寫經), 10종 공양(華·香·瓔珞·末香·塗香·燒香·繪蓋·幢香·衣服·技樂)과 합장 경배 등의 실천을 아우른다.

14) 민족불교연구소 편, 『민백』(1993), 249-251; 대한불교불입종(<http://www.bomunsa.or.kr/>); 대한불교법회종(<http://www.ysbuphwas.org/>); 대한불교보문종(<http://www.bomunsa.or.kr/>); 대한불교천태종(<http://www.cheontae.org/>); 대한불교관음종(<http://www.kwanum.or.kr/>); 대한불교일승종(<http://www.ilseung.or.kr/>).

Ⅲ. 서울 영산법화사의 시식의례

한국불교 주요 시식의례라 할 수 있는 관음시식은 선행 시식의례의 영향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변형을 겪었다. 시식의례에 담고 있는 의문은 대개 독자적으로 발행된 경우보다 제반 작법이나 각 청 의식과 함께 편제되었다.¹⁵⁾ 법화종단의 시식의례를 고찰에 앞서 불교 시식의례의 성립과 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서울 영산법화사의 대상으로 시식의례를 본격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불교 시식의례의 성립과 의례의 구조

1) 불교 시식의례의 성립

한국불교의 ‘시식의문(施食儀文)’으로는 『석문의범(釋門儀範)』¹⁶⁾에 실린 시식의례로 상용영반·관음시식·전시식·종사영반·화엄시식과 구병시식 있고, 『통일법요집』¹⁷⁾(이하 『통일』이라 함)에는 사십구재(천도재)로서의 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구병시식·종사영반·전경의식 등이 다양하게 편제되었다.

시식의례의 명칭에는 비록 시식만 들어 있지만 무외시, 법시가 다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다루는 시식의례의 근원 경전인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괘의경』에서 설하는 붓다의 경전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다.

다라니법으로 가지한 이 음식과 물은 그 양이 법계의 음식과 같아져 다함이 없어서 모두가 다 성과(聖果)를 얻어 괴로움의 몸을 벗어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이 다라니법을 받아 지녔으므로 그대의 복덕과 수명은 늘어날 것이고, 아귀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또 정토에 가고 인천의 몸을 받을 것이다. 시주로 하여금 장애를 굴러 재앙을 없애며 수명이 더욱 늘어나고, 현재는 수승한 복을 불러들이고 미래에는 보리를 얻는다.”¹⁸⁾

15)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37.

16) 安震湖編, 『釋門儀範』(1935/1980).

17)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통일법요집』(2003).

시식의례의 핵심인 ‘다라니법’으로 가지를 하면, 한 그릇의 음식이 갖가지 갈로 음식으로 변하여 그 양은 법계의 음식과 같아진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야만 수많은 아귀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먹고 나면 피로운 몸을 벗어나게 된다. 또 시식의례를 행한 시주자는 수명과 복덕과 늘어나고 음식을 받는 아귀들은 천상(天上)과 극락정도에 나며 사람의 몸을 받는다고 설하고 있다.

시식의례의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과 『불설구면연아귀다라니신주경』에 근거한 의례에 기초하고 있다. 잘 알려진 두 경전의 개략적인 이야기는 대동소이하다.

시식은 진언 염송과 같은 종교적 행위와 더불어 보시를 통해 배고픈 이를 구제하는 사회적 행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시주자(施主者)는 재보(財寶)를 보시하고, 수행자(修行者)는 가지(加持)라는 종교적 의례를 통해 공양물을 정화(淨化)/성화(聖化)하는 과정을 거쳐 일체 여래와 선신(仙神)과 귀중(鬼衆) 그리고 배고픈 이들에게 베풀어 먹게 하는 것이 시식의례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종교적 의례라는 표면적 모습이지만 진정한 사회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붓다가 아난존자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설해준 ‘무량위덕자재광명승묘력진언’이라는 다라니로 가지(加持, 宗教的, 聖化)를 하고, 또 불보살의 자비 원력(願力)에 의해 한 그릇의 음식이 한량없는 음식으로 변화된다. 한량없는 음식으로, 수많은 아귀를 먹일 수 있게 되고 배부른 이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불타의 진리를 듣고 복덕과 수명이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깨달음(bodhi)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 「이익존망품(利益存亡品)」의 ‘망자(亡者)를 위해 올린 공양의 복덕과 이익의 일체 성스러운 것의 칠분의 일은 망자가 받지만 칠분의 육은 자신이 받는다’라는 칠분공덕설(七分功德說)²⁰⁾ 또한 시식의 공덕이 자신의 선업(善業)을 닦는 것임을 분명하게 설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경전의 언설(言說)로 볼 때 시식의례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대승의 보살도인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생

18) 不空譯, 『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T21, 469a).

19)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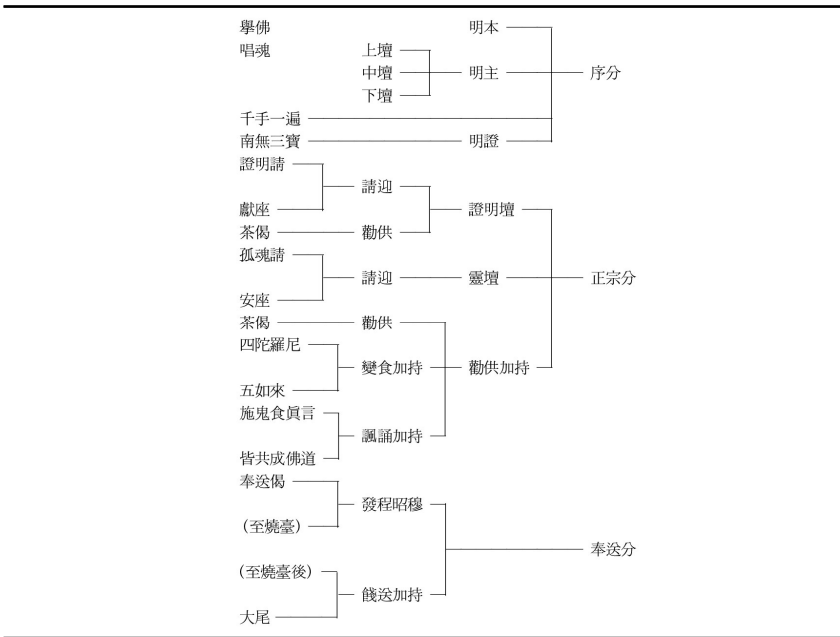
20) 實叉難陀譯, 『地藏菩薩本願經』(T13, 784b).

을 구제하고 자비와 자기완성의 지혜를 닦는 도량(道場)이라고 할 수 있는 시식의례는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 바탕으로 하여 의례로 정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여기에 『유가집요시식의궤』나 『증수선교시식의문』 등이 더해져 더욱 정교화되어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의 경전을 통해서 보시의 공덕과 시식의 공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2) 불교 시식의례의 구조

불교의 시식의례 가운데 현재 한국불교 전통종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교 시식의례의 구조 분과를 중심으로 의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일용의식수문기』의 시식 의식 분과²²⁾는 다음과 같다.

〈표 1〉 『일용의식수문기』의 시식의식 분과



21)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37.

22) 김월운(1991), 『日用儀式隨聞記』, 60-61.

『일용의식수문기』에서는 시식의례를 전통의 경전 분석분인 서분·정중분·봉송분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에 비해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²³⁾에서는 약간 다른 분과를 보이다.

〈표 2〉 「한국불교 의례 체계 연구」의 시식 의식 분과

1) 召請

唱魂 著語

請魂 진령계

풍송가지: 천수찬계, 천수주

파지옥계·진언, 파지옥진언, 해원결진언

보소청진언

나무삼보, 나무대방광불화엄경

[冥界請] 증명청, 향화청, 가영, 헌좌, 다계

고혼청, 청사, 향연청, 가영, 수위안좌진언, 다계

2) 施食

變食 [풍송가지] 변식 사다라니

施食 [無畏施] 칭양성호 오여래

[財施] 원차가지식~, 시귀식·보공양진언,

공양찬(수아차법식~처치안락국)

[法施] 반야계송, 여래십호, 법화계송, 열반계송

3) 往生

정도엄: 장엄염불, (송주성) 칭명가지(아미타불 등 제보살명호),

왕생발원, 봉송, 왕생발원

보례삼보

행보 법성계,

봉송 봉송소, 풍송가지(시방삼세일체불~마하반아바라밀) 원왕생발원 소전진언·

봉송진언·상품상생진언

회향 보회향진언, 회향계, 삼회향 가지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의 분과는 『통일법요집』 구조를 일반적인 종교의례의 분과법이라고 할 수 있는 ‘1) 소청(召請), 2) 시식(施食), 3) 왕생(往生)’의 3단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전통의 현교의식인 『통일법요집(관음시식)』에 나타난

23)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37.

시식의례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영산법화종의 『천도 법요식』로 진행된 영산법화사의 시식의례는 <표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3> 법화종단의 『천도법요식』 / 소요 시간(50분)

1) 관상소청(觀想召請)	[11(時)-10(分)]
삼보례, 봉청 정례, 공양, 산화, 찬불계	
2) 오신(娛神)	[10(分)-35(分)]
[당구가피] 시식(귀의) [정화] 원문, 쇄수, 오여래(각각1분) [법시] 여래수량품제16, 주원, 개경계 묘법연화경제발달다품12, 주찬, 요발 초훈, 찬탄, 제목(나무묘법연화경) 회향	
3) 봉송(奉送)	[35(分)-50(分)]
영가법문 사홍서원 축원	

2. 영산법화사 시식의례의 양상

전통불교 의례의 분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6번지 영산법화사의 계묘년 정초기도 『천도 법요식』(2023.1.28.)이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설행 되었다. 이날 시식의 절차는 영산법화사 사부대중과 신도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와 대중들은 『천도 법요식』 의례 책을 가지고 의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법사와 함께 의례 책을 독송하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영산법화사만의 49일간 매주 시식과 차 공양을 올리는 것이 해마다 관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영산법화사의 『천도 법요식』을 현교의 『통일법요집』에 나타난 시식 의례를 비교 분석하여 설행된 절차를 살펴보면서 영산법화사의 시식 의례를

관상소청(觀想召請), 오신(娛神), 봉송(奉送)의 송신 3단계로 분과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상소청(觀想召請)

한국불교 의례의 의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진언은 대개 계송 다음에 시설되고 있다. 보례계와 보례진언, 개경계와 개법장진언, 헌좌계와 헌좌진언, 진령계와 소청진언 등이 그 예다. 이렇게 동일(同一)한 의미로 계송과 진언이 연해 시설된 의례를 현밀(顯密) 방식이라 한다.²⁴⁾ 반면에 삼보 전에 정좌하고 우선 중생을 자민(慈愍)하고 구호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여래의 삼신이 법계에 두루 하여 지금 이 도량에 영현(影現)하고 계신다고 관상(觀想)하고서 진심으로 공경하는 음성으로 삼보를 청하는 봉청²⁵⁾은 ‘아차도량여제주시방삼보영현중 아신영현삼보전, 두면접족귀명례’의 정례 계송을 아뢰고 “至心歸命禮供養十方一切上住佛, 至心歸命禮供養十方一切上主法, 至心歸命禮供養十方一切上住僧”라고 정례하는 의식을 행하여지고 있다.

삼승(불법승)께 예배하고 나서 공양을 “원차향화운 편만시방계 공양일체불묘법연화경 보살성문중 수용작불사”라고 올리는데, 육법 공양으로 쌀 향 꽃차 과일 촛불을 올리며 감사의 표현이라고도 하며, 물질적 표현과 성현을 찬탄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뜻²⁶⁾이라고 찬불계에 전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 영산법화사의 법당 구조를 보면 본존불이 영산교주 석가모니불과 좌우로 혼령 위패를 모셔둔 우측 영단과 좌측으로 영산법화사를 개창(開創) 이법화 조사(祖師)를 진영을 모셔놓고 있다. 현 한국불교 종단에서 보아온 보습과는 차이점이 있었다. 시식을 거행하는 법주스님은 목탁과 요령으로 집전하고 동참 제자와 함께 <그림 1>의 법고를 들고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염송하는 모습이다.

24) 이성운(2018),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 133.

25) 이법화(1993), 『법화경요문과 예규(法華經要門과 禮規)』, 63.

26) 이정숙(2013/1988), 『법화경 천도법요식』, 11-12.



〈그림 1〉 대중이 함께 '나무묘법연화경' 정근

시식의례는 음식을 베푸는 의식이므로 음식을 베풀려면 베풀을 받을 이들을 청해, 음식을 베풀 뿐만 아니라 무외시와 범시를 하고, 보시받고 이들이 머물러 있을 자리로 돌려보내는 순서와 구조로 되어 있다.²⁷⁾ 또한 상단의 성현을 청할 때는 그분들의 공능을 찬탄하는 데 비해 하단의 존재들을 청할 때는 착어 같은 법문을 넣어 청하는 것이 한국불교 의례의 한 특징이라고도 하겠다.

오늘날 『통일법요집』 등 일부 의문에는 증명청이 생략되어 있는데 증명청은 오는 이들을 증명하기 위해 성현을 청하는 것이다. 맑은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대성인로왕보살마하살을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오니, 자비로써 도량에 강림하여 공덕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증명해 달라고 청하는 성현은 인로왕보살이다.²⁸⁾

증명청을 현교에서 가지를 청하는 것인데 그러나 영산법화사의 천도 의식은 다른 현교 종단에서 보이는 증명청이 영산법화사『천도 법요식』에서는 증명청이 안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첫째는, 삼보례 예경을 하므로 전통불교에서 변재 삼보는 상단 권공이라 할 수 있다. 상단에 공양을 올리고 나서 종단 퇴공(신중단) 후 하단시식(영단)을 한다. 거불은 변재 삼보를 청명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27)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39.

28) 이성운(2018),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 226-227.

있겠다. 변재 삼보를 칭명할 때 상단과 좌우 중단의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불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둘째, 영산법화사에서 법화삼보는 삼보례라 할 수 있겠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 불; 지심귀명례 일승원교 평등대혜 실상 묘법연화경;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법화홍통 승가야중,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아정례 명훈가피력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의 원문에서 알 수 있다.

창혼은 ‘혼령을 부른다’라는 뜻인데, 거불(擧佛)을 행한 다음 행한다. 혼령, 곧 영적 존재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속에서는 신위(神位)라고 하는데 비해 불교에서는 영위(靈位)보다 영가(靈駕), 선가(仙駕), 각령(覺靈) 등으로 부르며, 영가라는 표현을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한다.³⁰⁾ 영혼을 칭하는 의식은 창혼과 달리 그 구조가 꽤 복잡하다. 왜 복잡할까. 곧바로 오지 못하는 영혼은 무슨 곡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곡절은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도 두 측면이 있다. 첫째 타율적으로 속박되어 자유롭지 못하거나, 둘째 스스로 원망 속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경우다.³¹⁾

조계종의 『통일법요집』 「관음시식」에서는 가피를 구하는 의식을 한 다음 영가를 청하고 있다. 삼청은 해당 영가를 세 번 청하는 것으로, 청하는 말씀 곧 청사 사이에 각기 다른 법문 구절을 삽입하고 있다. 그러나 영산법화사 천도 의식인 ‘초혼’에서 살펴보면 영가를 천도할 때 고훈을 청하는 법문을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원실상이신 일승교주 석가모니불께 귀의하옵니다. 다보분신은 연설 증명 하옵시고,
 천인들과 중생들은 갑절의 법락을 받으소서, 선사와 지혜와 덕망이 높은 스님과 큰스님들의 은혜에 ... 중략
 이곳에 모인 정진대중 각각 등 복위와 법당 내 봉안한 위패 열위 영가 등 시방

29) 정오(2022), 『예식의궤』, 57.

30) 이성운(2018),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 218.

31) 이성운(2018),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 223-224.

법계 일체 만영 25유³²⁾ ‘...중략’

지극한 마음으로 받으소서. 나무묘법연화경, 보배연화 법좌에 정좌하여 보살의 등각을 이루소서, 그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 ○ ○³³⁾

그리고 영산법화사 천도 의식에서는 신을 청하는 의식이나 혼령을 청하는 의식이 따로 있지 않으며 당구가피(當求加被) 의식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오신(娛神)

신(神)에게 부탁을 하고 신을 즐겁게 해 드리고 신에게 가피를 받기 위해 바라춤 공양을 올리는 것을 오신(娛神)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오신(娛神)은 당구가피(當求加被)/정화(淨化)/법시(法施)로 구분하여 시식의 의미를 편제하였다. 시식(施食)은 음식을 베푸는 의미가 있으며 음식을 준비하여 이 음식을 현교 의식에서 사다라니 진언을 봉행하여 변공 의식을 한다. 그러나 영산법화사 천도 의식에서는 붓다께서 광야(曠野)라는 귀신과 그 권속을 조복 받으시고 인육(人肉)에 길들여진 그들을 위하여 성문(聲聞) 제자들에게 음식을 베풀도록 하셨다³⁴⁾고 한다.

전통불교 관음시식에서는 거불(學佛)을 ‘나모극락도사아미타불, 나모모관세음보살, 나모점인망령인로왕보살’ 거불 명호로 그날 법회의 주불이신 불보살의 명호를 칭하며 예경의식을 올리는 예(禮)이다. 다음은 귀의/원문/ 쇄수/ 오여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산법화사에서 설행 되는 『천도 법요식』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널리 자비심을 일으켜 깊이 삼보의 가피를 청하라,’ 시방미진찰중에 있는 모든 아귀가 “모두 구름처럼 모여 와 배불리 따라와서 먹는다.”라고 오직 관(觀)하여 생각하라고 설

32) 25유(二十五有): 3계를 떠면 25유가 된다. 과보(果報) 있는 것, 욕계(欲界) 14유, 색계(色界) 7유, 무색계(無色界): 4유를 말한다.

33) 이정숙(2013), 『법화경 천도법요식』, 207.

34) 西晉 竺法護譯, 『佛說文殊師利現實藏經』(T12, 460c).

하고 있다. 영산법화사에서 전하고 있는 거불(學佛)로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나무본사석가모니불,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대비관세음보살’를 3 번을 읽고 다른 어떤 불보살의 명호를 찾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귀의(歸依)’란 목숨을 바쳐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의문을 전하고 있으며, 전통불교에서 귀의 의미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식 단계에서 원문(願文)을 보면 ‘아귀의 무리에게 시식시키며 원하는 법어라’라고 의미를 전하고 있다.

대비신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깨끗한 공양을 향하사 같은 귀신(아귀)들에게 보시하노니
 원컨대 다 배불리 먹고 간탐심을 버리고서 속히 지옥고를 여의고 인간·천상·선도에 태어나서
 삼보께 귀의하여 보리를 깨닫고 마침내 무상 정각을 이루어서
 법식을 함께 받을지어다.³⁵⁾

정화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쇄수(灑水)’는 한국불교 주요 시식의례라고 할 수 있는 관음시식에서 선행되는 관욕(灌浴) 의식일 것으로 생각된다. ‘관욕(灌浴)’이라 목욕 의식이다. 목욕한다는 의미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정화의식인데 이때 번뇌라는 업의 식으로 인해 맑은 마음이 되지 못하면 부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³⁶⁾ ‘澍甘露法雨(수감로법우), 滅際煩惱焰(멸제번뇌염)’ 3번을 ‘나무묘법연화경’ 감로의 법우를 뿌려 번뇌의 불꽃을 멸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법력이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오여래(五如來)는 한국불교 주요 시식의례(施食儀禮)에서는 여래와 진언을 칭하여 가지 하여 힘으로서 부처님 명호를 불러 아귀가 안락을 구함은 일맥상통하나 영산법화사 칭양성호(稱揚聖號) 오여래(五如來) 의식으로 작용하여 유주무주(有住無住) 고힘들에게 하여금 이고득락하게 하는 계송에서는 전통불교와 약간

35) 이정숙(2013), 『법화경 천도법요식』, 96.

36) <https://band.us/@buddharanya.2023년> [2023.8.15.].

의 차이점이 보인다.

시식의례의 칭양성호 의식은 오여래(五如來) 칭명이든 칠여래 칭명이든 다보여래로 시작한다. 하지만 『불설구발염구아귀다라니경』 이외의 경궤(經軌)에는 보승여래가 앞에 자리한다. 그렇다면 영산법화사는 보승여래(寶勝如來)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경궤(經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보·묘색신·광박신·이포외여래’와 ‘다보·묘색신·광박신·이포외·감로왕여래’를 비교해 보면 오여래(五如來)에는 감로왕여래가 더해졌으며, 다시 오여래(五如來)를 ‘다보·보승·묘색신·광박신·이포외·감로왕·아미타여래’의 칠여래와 비교하면, ‘보승여래’와 ‘아미타여래’가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산법화사의 오여래(五如來)를 비교하면 ‘다보’ 여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네 분 여래의 원력이 필요한 것이다.

가령 다보여래의 명호와 진언을 칭명하여 가지 하여 주므로 일체 아귀가 다겁생(多劫生) 동안 지은 인색하고 탐내는 악업이 깨지고 곧 복덕이 원만해진다. 묘색신여래(妙色身如來)의 명호와 진언을 칭명하여 가지 하여 주므로 아귀들의 못생긴 모습이 깨지고 원만한 색상이 구축 해진다. 광박신여래(廣博信如來)의 명호와 진언을 칭명하여 가지 하여 주므로 모든 아귀의 목구멍이 넓혀져 베푸는 음식이 마음대로 채워지게 된다. 이포외여래(離怖畏如來)의 명호와 진언을 칭명하여 가지 하여 주므로 여러 아귀가 일체 두려움이 다 없어져 굶주린 아귀들의 세계를 떠나게 된다.³⁷⁾

영산법화사 칭양성호(稱揚聖號)를 오여래(五如來)께 ‘귀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나모’를 의지한다, 귀의한다, ‘돌아간다’라고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나모’로 오여래께 가피를 구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의미의 전달이 깊이가 더해짐을 알 수 있겠다.

오신(娛神) 가운데 법시(法施)에 해당하는 『여래수량품제십육(如來壽量品제십육)』³⁸⁾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의 뜻이 있다고 한다.

37)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T21, 465a).

38) 『법당용 기초교리집』, 54-57.

첫째는 개근현원(開近現遠)으로서 가까이 있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 사실의 근원을 점차 적으로 더듬어 찾아가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다. 가까이 있는 사실은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에 나오시어 깨달음을 여시고 그 깨달음의 길을 수많은 사람에게 설법하셨다는 사실이다. 법은 지구상에 인류가 생겨나기 전부터 또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진리이다.

둘째는 개적현본(開迹現本)으로서 자취를 열어서 근본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자취는 적불(迹佛)로서 자취를 남기신 부처님, 형태로 나타나신 부처님을 의미하고, 본(本)은 본불(本佛) 즉 본래 부처를 의미한다.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석가모니나 먼 미래에 나타나실 미륵불이 등이 모두 역사적으로 흔적으로 남기는 적불(迹佛)이다. 이렇게 적불(迹佛)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그 깊고 깊은 곳을 잘 생각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본 불이계심(不二戒心)을 확고하게 자각하는 것이다.

셋째는 개권현실(開權顯實)에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임시로 어떤 형태를 취해서 출현하신 것을 권현(權現)이라고 한다. 방편의 가르침도 대단히 중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가르치기 위한 임시적 가르침일 뿐이다. 방편의 가르침 덕분에 중생들의 희망이 제법 높아지기는 했으나 아직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방편을 버리고 진실한 최고의 가르침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여래수량품』이다. 이 『여래수량품』의 내용은 역사적 유한성을 가진 석가불은 80세의 생애를 보이면서 가야성에서 성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량무변(無量無變) 백천 만억 나유타 이전에 벌써 성불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부처님은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설법 교화하고 또한 다른 국토에서도 중생 교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등불(燃燈佛) 등의 부처님이 출현하여 열반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모두가 세간의 중생을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구제하기 위해 그와 같이 시현(示現)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이 멸도(滅度)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멸도(滅度)가 아니다.³⁹⁾ 멸도(滅度)는 즉 열반이 모든

39) 『妙法蓮華經』(T9, 42下).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⁴⁰⁾ 『여래수량품』의 서두에서 신해(信解)할 것을 당부한 것은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인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부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영산법화사에서는 법시(法施)의 의미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진리를 모르고 무명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친, 즉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⁴¹⁾ 재시가 끝났으니 이제 초청된 영가와 고흔들에게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 말씀인 법문을 들려주는 차례이다. 곧 법시(法施)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항에서는 법시의 구조와 의문에 따라 법시의 형태가 새롭게 변화를 겪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법화 신앙의 핵심인 ‘南無妙法蓮華經’이라고 할까를 영산법화사에서 대중들에게 기초 교리를 가르치면서 절대적인 이치의 부처가 이 절대적인 현실 세계의 실상이 묘법(妙法)이라 하고 이 절대적인 부처와 절대적인 우주의 실상이 인(因)이 되어 활동하는 것을 연화(蓮華)라고 하며, 이 활동이 영원히 질서정연하게 지속되는 것을 경(經)이라 하며 곧 이것이 법(法)인 것이다.⁴²⁾ 여기서 부처님의 진리를 말씀인 법문을 들려주는 훈령을 위한 법문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저희들이 수지하옵는 묘법연화경은 더 없는 진실이며, 일체 공덕의 광명이며, 무량한 위덕이며, 다라니이며 비밀의 진주이옵니다.

원하옵나니, 이부구 청정한 광명이 온 유명계의 귀신과 육도의 모든 어두운 중생을 두루 비추시고, 괴로운 업장이 과보와 무명의 번뇌를 없애시고 색심의 의정으로 하여 가지가지의 청정하고도 미묘한 광명을 얻게 하옵소서. 중략’

다음은 주원과 축원 의식을 하는데 주원(呪願) 및 축원(祝願)은 아뢰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찬탄도 있고, 소원을 비는 축원도 있다. 이곳에서는 축원을 이른다.⁴³⁾ 영산법화사의 주원은 아귀에게 시식하면서 읽는 주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40) 『妙法蓮華經』(T9, 42下).

41) 『법당용 기초교리집』, 65.

42) 『법당용 기초교리집』, 3.

43)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28.

“너희들 아귀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범공양을 베푸느니 이 범식을 시방에 두루하여 일체 귀신들에게 베푸는 바 감로수와 같이 열뇌를 저거하고 청량미를 얻느니라. 굶주린 백성들이 문득 임금의 수라상을 만난 것 같느니라. 원컨대 이 공덕으로 널리 우리들과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성불하게 하여 주옵소서.”⁴⁴⁾

영산법화사 의식의 특징이라 볼 수 있는 영가 법문 내용에서 무량한 덕을 지니며, 다라니이며 비밀의 신주라고 『묘법연화경』이며 곧 진실한 유해의 시식이며 다라니이며 비밀의 신주라고 하였다.⁴⁵⁾

개경계(開經偈)는 영산법화사 의식집 『법화경요문과 예규』에서의 특이점은 송주의식에서 현행 개경계의 삼구 ‘아금문견득수지(我今聞見得受持)’가 ‘아금견문득수지(我今見聞得受持)’로 나타나고 있다. 문견(聞見)은 듣고 나서 보는 것이니 배우고 나서 복습한다는 것이고, 견문(見聞)은 보고 나서 듣는 것이니 예습하고 나서 배운다는 뜻으로 표기되어 있다. 개경계를 거시적인 입장에서 경을 처음 연다는 뜻으로 입지를 굳게 하려면 보고 나서 들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개경계를 미시적인 입장에서 경을 알게 하는 뜻으로 본다면 들으면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또한 현행 개경계 뒤에 편제되어 ‘개법장진언’ 대신 천태대사가 쓴 계송을 편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법장진언은 ‘금강경계창’⁴⁶⁾에는 편제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1496년 판, 「진언권공」 〈작법절차〉에는 ‘개법장진언’이란 문구 없이 ‘옴 아라남 아라다’가 개경계 뒤에 바로 이어진다.⁴⁷⁾ 전통불교 의례는 계송과 진언이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의식을 진행한다. 반면에 영산법화사에서 거행되는 의식을 살펴보면 진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극한 대승의 이치는 생각하기 어려우니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보리의 길이로다.
보신이요, 나타남은 법신이며

44) 이정숙(2013), 『법화경 천도법요식』, 159.

45) 이정숙(2013), 『법화경 천도법요식』, 160.

46) 刊經都監, 『金剛經診解』(1464).

47) 학조 역, 『진언권공』(1496, KR2).

색상문자는 응신이다.
 한량없는 공덕이 이 경에 다 모였으니
 이룬고로 이익이 자재하여 복덕이 있음이라.
 지혜야 있든 없든 죄는 소멸되고 선이 소생하니,
 믿는 자나 비방자나 다 함께 불도를 이루리.
 삼세 모든 부처님의 깊은 묘전을
 세세생생 만나서 받들고자 하나이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능전을 보신’으로 ‘소전을 범신’으로 ‘색상 문자를 응신’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일반적인 삼신(범신·보신·응신)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여 종단의 명확성을 드러내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바로 경문을 여는 계승으로 『묘법연화경』에서 『제바달다품 제십이』를 읽는다. 『제바달다품』은 악인 제바달다와 불과 8세인 용녀가 성불하는 두 가지 성불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제바달다는 오역죄를 저지른 악인에 속한다. 하지만 『묘법연화경』을 편 공덕으로 장차 천왕여래로 성불하게 된다고 하고, 가장 성불이 어려운 축생계 8세의 용녀가 이 경을 실천하여 순식간에 성불한 이야기이다. 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법기(法器)가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세상에서 가장 성불하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을 실천하여 불도를 이루는 설화이다.⁴⁸⁾

『묘법연화경제발달다품1경』을 독송하고 나서 주찬(呪讚): “아단지 못다바선에 살바다라니아바다지”라고 세 번을 읽는다. 「아단지」란 무아를 뜻한다. 본인 자신의 이(利)·해(害)·득(得)·실(失)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노력할 마음을 갖는 마음을 말한다. 「못다바선네」는 제불회(諸佛廻)라고 번역하는데 회(廻)란 사양을 한다는 것, 그래서 남에게 돌려주는 것 즉 회향을 뜻하는데 자기가 좋은 공덕을 심었다면 그 결과를 자기가 가지지 않고 남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께서도 지혜를 닦고 좋은 일을 하시고 깨달음을 여신 그 결과를 중생들에게 돌려주셨다. 온갖 난행 고행을 쌓으셔서 깨달으신 것을 아낌없이 경전

48) 이정숙(2013), 『법화경천도법요집』, 법화홍통원, 198-1~198-2 주찬.

에 밝혀 우리에게 성불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셨으며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법화경』을 널리 펴야 한다는 것이다. 「살바다라니 아바다니」: 제총지회(諸總持廻) 남에게 감화를 미치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영양을 주는 것이며 ‘모든 총지’란 모든 사람에게 감화를 주어서 좋은 결과를 갖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총지’란 모든 좋은 일을 가져서 잃지 않고 모든 악한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의 착한 선을 키워나가는 노력은 많은 사람에게 감화와 이익을 주는 것이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기에 주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초혼(招魂) 의식 구조를 1단계 소청(고혼청)으로 분과를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요발(鑿鉢)은 왜 영가를 천도할 때 고혼을 청하는 초혼(招魂) 의식 앞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의식을 집전하는 영산법화사 담당자 법사와 직접 전화로 요발(鑿鉢)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다름이 아닌 범패 의식인데 요즘은 의식의 번다함을 줄이기 위해서 요발(鑿鉢) 의식은 생략한다고 하였다.

제목(題目), 보탑계(寶塔偈)는 시식을 거행하는 법주스님은 목탁과 요령으로 집전하고 동참 제자와 함께 법고를 들고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정근(精勤) 모습은 『관음시식』에서의 장엄 염불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영산법화사 회향(廻向)은 기도의 공덕을 영가와 유명계(幽冥界)⁴⁹⁾ 모든 중생에게 돌려줌으로써 따라서 인과의 수행에 맑고 깨끗한 이익과 깨달음의 원인이 될 공덕으로 진여의 법신불을 움직여 시방 중생에게 고투 베풀게 하므로 다시 기도의 공덕이 중생과 유명계로 돌아온다는 윤회적 관점을 이라 할 수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이리하다.

청정 대증이 삼보 성주 앞에 삼가 꿇어앉아 아귀 시식하는 복희를 범 따라 여
 읍고 유명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오니 원하옵건대 시방삼세 수기등연의 삼보
 와 변현 무궁하신 천신 각위께서는 이 자리에 강림하사 증명하옵소서. … 중략.

49) 유명계(幽冥界): 지옥 · 아귀 · 축생의 어두운 세계.

3) 봉송(奉送)

영산법화사에서 별도의 변재 삼보를 소청하는 부분은 없지만 봉청하듯이 거행하는 마음가짐을 관상하듯 영산법화사에서의 훈령을 보내는 송신 의례는 보이지 않고 사홍서원/축원/찬불계 절차에서 “사홍서원(四弘誓願)”을 부처님의 불자로서 네 가지 무변(無邊), 무량(無量), 무진(無盡), 무상(無上)의 큰 희망의 성취를 맹세함이라고 하였다.

봉송 계송의 ‘내가 다음 날 다시 도량을 세우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법주(法主)이다. 힘이 되는 대로 도량을 세워 일체 외로운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겠다는 서원이 그것이다. 다음 날에 세우는 법의 도량에 오시라는 청을 잊지 않는 곳에서 회향의 참 의미가 드러나며, 봉송의 그 순간, 그것을 위한 수행을 놓지 않겠다는 서원이 올곧이 담겨 있다.⁵⁰⁾ ‘기도의 공덕을 영가와 유명계 모든 중생에게 돌려 준다고.’⁵¹⁾라고 하였다. 전통불교 종단의 관음시식에서 봉송 회향 진언과 계송, 파산 계송과 삼회향 가지로 시식의례는 끝나치는데, 현재 드러난 의문에는 영가와 고힌들의 봉송만이 보일 뿐이다.

3. 영산법화사 시식의례의 특징

지금까지 한국불교 법화 종단의 천도 시식의문에 대해 전통불교 종단 『관음시식』을 본의 구조를 비교하며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주요 본들은 시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시식은 특정 존령(尊靈)의 기일에 올리는 영반 시식을 다르게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소청자가 봉위 모영의 특정 영가 중심이 되지만 법계 고힌과 명도귀 계인 아귀 중생에게 무외서 재시·법시를 베풀어 일차 극락왕생을 이루게 하고 구경에는 성불을 이루도록 발원하고 있다.⁵²⁾

법화 계통의 특징으로 신행 의례에서도 보이지만 ‘제바계’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극악무도한 제바달다조차도 성불의 수기를 주는 『법화경』의 사상을 체

50)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42-43

51) 이정숙(2013), 『법화경 천도법요식』, 219.

52)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196.

득한 결과 천도해야 하는 어떤 대상조차도 『법화경』 염송으로 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시식의문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악인의 상징인 제바달다의 성불 수기와 천도를 연결한 것은 법화사상을 실천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으며⁵³⁾, 그러므로 제바게의 시설은 악인조차 성불하게 할 수 있는 『법화경』의 위력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법화경』은 단일 경전으로는 가장 많이 간행된 불전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나라 불교 신앙을 살펴보면 『법화경』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⁵⁴⁾ 법화 종단 영산법화사 『천도 법요식』에서의 ‘나무묘법연화경’ 제목 봉창⁵⁵⁾은 단순한 경의 이름이 아니라 다섯 자에는 근본 교리에 나타나 있듯이 『법화경』의 오묘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이며 수행을 말하고 있다. 영산법화사는 ‘나무묘법연화경’을 봉창하면서 법고를 친다. 법고를 치는 수행은 아래와 같은 『법화경』 경문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1) 마의 군중을 파하려고 법고를 치는 것을 보며, 破魔兵中而擊法鼓 … 서품 제1 (파사현정, 즉 삿됨을 파하고 정법을 세우기 위해 북을 친다. 또한 천태대사는 법화문구에서 “초발심 주 때 정각을 이루어 백불세계에서 성불 함으로써 원만히 법고를 친다”고 하였다.
- (2) 불을 켜 사방에 영을 내려 법을 구하되 … 擊鼓宣靈 四方求法 … 제발달다 품 제12(스승을 구하기 위해 북을 치는것은, 해(解)를 얻고자 함이다)
- (3) 모든 하늘이 북을치고, 諸天擊天鼓 … 『여래수랑품 제16』
- (4) 하늘북은 허공중에서 자연히 소리를 내고 … 天鼓虛空中 自然出妙聲 … 분별공덕품 제17⁵⁶⁾

다음과 같이 확고한 법화 신앙을 배경으로 『천도 법요식』의 하는 영산법화사에서 의식을 고찰해 보았다.

끝으로 영산법화사 『천도 법요식』인 찬불게 계송으로 “천상천하무여불, 시방

53) 이성운(2015), 「의례와 수행의 특성」, 223

54) 이성운(2015), 「의례와 수행의 특성」, 223

55) 『법당용 기초교재』, 6.

56) 『법당용 기초교재』, 6쪽 참고.

세계역부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심귀명례.” 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즉 부처님을 찬탄하는 계송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은 없도다. 온 세상을 나는 두루 살펴보았으나 어느 곳에서도 부처님 같으신 분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일심으로 귀의 예배하나이다.⁵⁷⁾”라고 대중과 함께 독송한다. 영산법화사 『천도 법요식』에서는 다른 의식이 없으며 관상만 하라는 마음가짐으로 따로 변재 삼보를 소청하는 소청 의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의례의 기본 구조는 청을 했으면 즐겁게, 찬탄 공양하는 오신과 신에게 부탁하는 주원, 및 축원을 하고 본래 있는 자리로 보내드리는 송신의식이다. 그러나 영산법화사에서 선행 되는 천도 의식에서는 따로 의식이 없었다.

실제로 있다고 관상하는 의식 구조로 당구가피(當求加被)로 해석되어 진다고 본다. 의식이나 공양 의례는 다양한 소임을 가진 이들에 의해 진행되는데, 특히 변공과 같은 고도의 관상(觀想)이 필요한 의식은 수행이 높은 스님들에 의해 봉행 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부를 이루지 못하고는 중생 제도의 시식을 원만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청해서 그 사람에게 가피를 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다. 곧 나모불/나모법/나모승과 귀의불/귀의법/귀의승이 공능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본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3단 구조로 분과를 했으나 차후 소청과 오신 사이에서 5단계 내지 7단계로 나뉘 볼 수 있다고 본다.

IV. 결어

지금까지 법화 종단의 영산법화사 시식의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현 한국 불교 전통 종단들의 그것과 의식절차나 구성 등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불보인 석가모니불과 법보인 묘법연화경과 승보의 승가인 삼보례가 전부이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지심귀명례, 일승원고, 평등대혜 실상 묘법연화경;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 일체 법화홍통 승가야중’의 좌우로 혼령 위패를 모셔둔 우측 영단과 좌측으로 영

57) 이정숙(2013), 『법화경 천도법요식』, 258.

산법화사를 개창(開創)한 이법화 조사(祖師)를 진언으로 모셔놓은 구조이며, <그림 1>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는, 전통불교 종단에서는 계송 후 진언이 의례나 의식에서 빠질 수가 없다. 그러나 영산법화사에서 거행되는 『천도 법요식』에서는 진언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전통 종단 시식의례는 계송과 진언으로 영가들의 왕생을 발원하는 단계였다면 영산법화사에서 시식 구성 절차는 제목(나무묘법연화경)/보탑계/회향/영가 법문/사홍서원/축원/찬불계 이루어져 있다. 셋째는, 전통불교에서는 ‘장엄염불’은 아미타불을 칭명하는 염불을 장엄한다는 뜻으로 정토업의 하나인데, 즉, 정토에 왕생할 업을 닦는 의식이다.⁵⁸⁾ 반면에 영산법화사에서 제목(題目) ‘나무묘법연화경’을 힘에 따라 많이 외울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의식하는 법주스님은 요령과 목탁을 잡고, 참여한 대중들은 <그림 1>과 같은 ‘나무묘법연화경’ 쓰여있는 법고를 들고 법주스님하고 전통불교에서 나모아미타불 염불 정근을 하듯이 스님과 동참 제자는 시간상 5분을 정근을 하였다. 논자는 영산법화사에서 ‘묘법연화경’이라고 대중과 함께 법고를 치면서 염송하는 모습이 영산법화사에서 진행되는 의식 가운데 가장 장엄을 이루었다.

넷째는, 회향 축원 시에 앙고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앙고(仰告)는 두루 통칭하여 아뢰는데 각각의 불보살들을 거명하고 있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⁵⁹⁾ 대부분 ‘나모 석가모니불’로 회향 축원이 끝나는 것과 달리 ‘묘법연화경’과 ‘일승묘법연화경’으로 마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의식을 지내는 시간이 한 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영산법화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사회에 있어 전통불교 의례의 시식 시간이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58) 이성운(2018),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 252.

59) 전영숙(2021), 『한국불교 법화계종단의 예송의례』, 454.

참고문헌(References)

- 西晉 竺法護譯, 『佛說文殊師利現寶藏經』(T12).
唐 義淨譯,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T24).
『妙法蓮華經』(T9).
『大般涅槃經』(T12).
刊經都監(1464), 『金剛經諺解』.
鳩摩羅什 譯, 『妙法蓮華經』(T9).
智遠(1723),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KR3).
不空 譯, 『瑜伽集要救阿難陀羅尼焰口軌儀經』(T21).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T21).
實叉難陀 譯, 『地藏菩薩本願經』(T13).
학조 역(1496), 『진언권공』(KR2).
- 김월운(1991). 『日用儀式隨聞記』. 중앙승가대출판국.
김학량(1988). 『천도법요식』. 영산법화사출판부.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2003).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신규탁 외(2015). 『일대사인연 반세기와 미래』. 대한불교관음종 · 현대불교문화학술원.
李庚五(1992). 『한국신흥종교총람』. 한국신흥종교연구원 ·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이법화(1993). 『법화경요문과 예규(法華經要門과 禮規)』. 영산법화사 출판부.
이성운(2018). 『불교의례, 그 몸짓의 철학』. 조계종출판사.
岸本英夫(1983). 『종교학』. 박인재 역. 김영사.
安震湖編(1935/1980). 『釋門儀範』.法輪社.
이정숙(1988/2013). 『법화경 천도법요식』. 법화홍통원, 도서출판 학수림.
정오(2022). 『예식의궤』. 경제어산연구소.
- 김방용(1998). 「한국불교계 신생종단의 성립과 사상」, 『한국종교』, 제23집. 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 심상현(2014). 「施食과 靈飯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제72집. 서울 : 한국불교학회.
- 신용산(2019). 『『법화경』 서사의 상징을 통해 본 사회적 실천성 연구』. 동방문화대학 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瓌雨(1986). 「법화계열 중단들」, 『한국불교의 현상』. 불교사상.
- 이성운(2011). 「한국불교 시식의문의 성립과 특성」, 『불교학보』, 제57집, 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시식·공양·의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운(2015). 「의례와 신행의 특성」, 『일대사인연 반세기와 미래』. 서울: 도서출판 범성.
- 이성운(2017). 「근현대 한국불교 예송의례의 아우라」, 『불교문예연구』, 제9집. 서울: 동방대불교문예연구소.
- 이성운·문기조(2022), 「불교의 추천·초도 의례」, 『선문화연구』, 제33집. 서울: 선리연구원.
- 중범(1983). 「법화신앙과 관음신앙」, 『석림』, 17. 서울: 동국대학교 석림회.
- 전영숙(2021). 「한국불교 법화계종단의 예송의례」, 『불교문예연구』, 제18집. 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불교저널, <http://www.buddhismjournal.com>. 2023. 2. 27 검색.

대한불교불입종, <http://www.bomunsa.or.kr/>. 2023. 4. 20 검색.

대한불교보문종 <http://www.bomunsa.or.kr/>. 2023. 4. 15 검색.

대한불교천태종 <http://www.cheontae.org>. 2023. 5. 10 검색.

대한불교관음종 <http://www.kwanum.or.kr/>. 2023. 3. 26 검색.

대한불교일승종 <http://www.ilseung.or.kr/>. 2023.3.26. 검색.

<https://ksdsang0924.tistory.com/9148>. 2023. 3. 26 검색.

<https://band.us/@buddharanya>. 2023. 8. 15 검색.

유인물: 영산법화사, 『법당용 기초 교리 1』.

ABSTRACT

A Study on Sisik(施食) Rituals in the Beobhwa Order of Korean Buddhism

- Focusing on Seoul Yeongsan Beophwasa Temple -

Kim, Seo-yul

Ph.D. Student, Dongbang Culture University

This tex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the ritual ceremony at Seoul Yeongsan Beophwasa, which is the head temple of the Yeongsan Beophwa sect, one of the traditional Buddhist sects in Korea, in comparison to the Avalokiteshvara ritual ceremony of traditional Buddhist sects. The ceremony at Yeongsan Beophwasa is based on the "Cheondo Beopyo Sik" and, following the general structure of ritual ceremonies, involves requesting the presence of deities, praising and making offerings, and conveying the spirits back to their original places.

According to the standard criteria, the ritual structure of "Cheondo Beopyo Sik" at Seoul Yeongsan Beophwasa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ncludes the initial steps from inviting the deities during the Sambo ceremony to the second stage, which involves requesting the presence of the spirits (娛神), praising, offering, and conducting rituals such as Juwon (a ritual to request divine protection) and Chukwon Danggu Gapi (a ritual to drive away evil spirits). The third stage consists of the sending-off ceremony.

In contrast to traditional Buddhist sects, "Cheondo Beopyo Sik" at Yeongsan Beophwasa emphasizes "just contemplate" without a separate ritual for inviting deities. Additionally, there is no distinct ceremony for requesting divine protection during the Sambo ceremony, and there are no teachings after the

chanting. It is evident that all the ceremonies focus on contemplation, and the ritual of seeking divine protection is understood as Gapi (加被) for the ears.

Keywords : Beobhwa Order, Yeongsan Beophwasa, Sisik , Beophwa Gyeong, Songsin ritual, Gwansang

투고 일자: 2023년 12월 22일

심사 완료: 2023년 12월 25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26일